

방글라데시소식지

# 물에나라

잠기는

2018 Vol. 20



함께해요  
희망의 아시아

 ASIA FOCUS  
& APAB

# Contents

**인사말** / 이경옥 이사장  
**칼럼** / 정익모 대표

## NGO 사역기

사랑의 집 - 큰 가정, 작은 사회 / 최병훈  
보라초등학교 - 교사가 되다 / 슈밀 할달  
해오름중고등학교 - 감사에 감사를 더하여 / 이미연  
장애인센터 - 장애인센터 아이들 이야기 / 로날드 프리뿌라  
소망 봉제기술학교 - 기술학교 프로젝트 / 삐뽀 할달  
치타공 아주기숙사 - 하나님의 위대하심 / 몽 토와이 말마  
방과 후 학교 - 예상하지 못했던 나의 훈련과정 / 정찬양  
반도르반 제자기숙사 - 기쁨, 감사 / 이메지 짝마  
3개 무료초등학교 - 더 나은 교육 / Mr. 윌슨

## 생활수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 박금란  
Room No.4 / 안은혜  
약동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 사민 이아살  
나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 아시키 상마

## 간증

치타공을 방문하며 / 박정근  
지금 이곳에서도 동일하신 하나님 / 유재성  
하나님의 신실하심 / 훌라마짱 라케인

## 교회 개척 사역 / 정익모

**특집** - 로HING야 난민소식 / 필립 비샤시

## 후원자 인터뷰

ITC 통역스쿨 / 윤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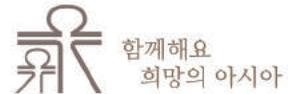
## 방글라 소식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 / 박금란  
보라초등학교 새 건물 소식

**방문기** - 하나님의 열심으로 / 김현리

**감사** - 슈퍼리어선교대상 수상

## 본부소식



방글라데시소식지  
**물에나라**  
2018 Vol. 20

발행처\_아시아포커스  
발행일\_2018년 6월  
발행인\_정빌립  
편집기획\_아시아포커스 홍보팀  
전화\_02 2060 8690  
팩스\_02 6378 8690  
주소\_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2안길 23,  
4층 401호(서교동)  
홈페이지\_www.asiafocusapab.com  
인쇄처\_대한기획

###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능력 주시고 일을 하십니다!

이경옥 이사장



정기총회를 통하여 한 해의 모든 사업수지·결산과 단체 현황과 사역 발전 방향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이사님들과 모든 동역자분들의 헌신·봉사의 수고의 열매를 기쁨으로 거두는 은혜 충만한 총회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 드립니다.

태풍과 해일로 물바다가 된 방글라데시에서 시작되어 지난 30년 세월과 함께 한 아시아포커스는, 이제 세계 최빈국에서 벗어나 새로운 역사를 만

들어가고자 하는 방글라데시 국민들의 꿈과 열망의 출발점에 함께 서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빛을 발할 때,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께서 방글라데시에서의 사역을 우리를 통해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몇 년간 단체 기도모임을 섬겨 주셨던 은혜교회 김상원 목사님과 팀

에게 감사를 드리며, 교회 개척과 목회자 훈련학교, 제자훈련 사역 등과 NGO 사역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신 교회와 동역자분들께도 큰 감사를 드리며,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 현지인들을 직접 섬겨준 단기사역팀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2월에는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에서 본 단체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인정받아 상을 받았으며, 5월에는 슈퍼리어 선교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교회와 동역자분들의 헌신과 희생의 결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고전 3:9)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자 됨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늘 충성하

는 일꾼 됨과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롬10:15) 오늘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음 단계의 목표위에 함께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지속적인 후원자님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큰 힘이 되어주실 것을 기원 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시117:2)

♥ 글-이경옥: (주)동구바이오제약 회장으로서 2011년 7월부터 아시아포커스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 다양한 그러나 저에겐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정익모 대표



인구밀도가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방글라데시, 그리고 가난함과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경직성이 외국인들의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국가의 두 번째 도시인 치타공에서 살며 사역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특히 좋은 일 꼭 필요한 일이라고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중간에 후원이나 상황에 의해 중단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같이 동역하던 사람들이 언어와 문화를 익혀 사역을 할 만하면 여러 이유로 떠날 때 그 좌절감으로 인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2004년 봄에 KBS “한민족리포트” 팀이 어디선가 소식을 들었다고 저희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곳에 와 촬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한국에 방송이 되었을 때 저희를 아는 많은 분들이, 특히 방글라데시에 와보지 못했던 분들이 많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을 통해 저희들의 삶과 사역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며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수고했다고 격려해주심을 통해 저희가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같은 일이 2011년 1월 KBS2 “희망릴레이! 사랑 싣고 세계로”가 방영될 즈음에도 있었지요. 어떻게 이분들이 방글라데시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들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는지 지금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또한 2009년 8월경 재방 한국대사

관에서 해외 교민들에게 주는 국무총리 표창 대상자가 되었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때도 심한 어려움에 봉착하여 주님과 깊은 씨름을 할 때였습니다. 누가 추천하였는지도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 우리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격려라는 느낌에 감사함으로 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5월 15일) 받은 슈페리어 선교대상은 이 상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을 때 저희들을 잘 아시는 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와 단체를 잘 알고 섬겨주시는 분이 신청하라고 하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으며 순종하였습니다. 이때도 여러 어려움을 겪는 중에(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주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격려를 느끼며 감사하며 다시 힘을 내는 계기가 되었지요. 특히 상과 함께 받게 된 수상금은 여러 상황으로 문을 닫게 된 고라마리(폐선 처리장 어촌 마을)초등학교와 밀자노골초등학교를 합쳐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정과 기숙사 및 보육원 출신 아이들의 대학교육을 위한 재정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방법과 다른 분들을 이끄시는 방법은 동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

님이시기에 제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좌절, 고통 등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적절한 위로와 격려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 지라도..” 이런 특별한 격려와 위로가 없어도 저는 사랑하는 주님을 좇아가겠지만 함께 해주시며 격려해주시는 하나님 또한 더욱 찬양합니다.

♥ 글-정익모: 1989년 YWAM (예수전도단) 방글라데시 파송 1991년2월 남부 치타공 지역 개척 현재 방글라데시 남부 지역 Eldership으로 섬기면서 방글라데시 국제 NGO인 APAB (한국명: 아시아 포커스)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 큰 가정, 작은 사회

최병훈 사역자

‘사랑의 집’은 70여 명이 함께 살아가는 큰 가정이자 동시에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작은 사회이기도 합니다.

대여섯 명이 한방에서 함께 자고 지내면서, 방 안에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제 할 일들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형과 언니들로부터 꾸지람을 듣기도 하지요. 아침 경건회 후에는 커다란 집을 구역으로 나누어 30분간 청소를 합니다. 그런 후에 다 함께 모여 왁자지껄 떠들면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후에는 정해진 시간에 따라 공부와 보충학습(학과, 음악, 미술, 악기 등)을 합니다. 오후와 저녁시간에는 큰언니 오빠들이 작은 아이들의 숙제와 공부를 도

와줍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면 다시 한 방에 모여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장난치다가 잠이 들지요.

우리 ‘사랑의 집’은 가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고 조직적이며, 사회 조직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정적인 모습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헛갈리고 제대로 판단이 서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를 부르시고 일을 맡겨주셨음을 기억하고 그러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사랑의 집’에도 매년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작년 한 해

에만 11 명의 새로운 아이들이 사랑의 집에 들어왔고, 올해도 3 명의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들어오려는 아이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함께 살게 된 두 아이는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입니다. 2살과 5살의 아이들 엄마는 막내가 태어난 후 얼마 있다가 집을 나가 재혼을 했고, 아빠도 재혼을 준비하면서 새엄마가 그 아이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보육원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만 18 세가 되면 사회로 나가 직장을 얻든지 대학으로 진학을 합니다. 물론 아직 사회에 나가 홀로 설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랑의 집에 더 머물면서 진로를 준비하기도 하구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랑의 집’에 들어와 생활하는 것에 대해 즐거워하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머리가 커지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고착화되고, 가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장이나 사회도 아닌 이곳에 대한 불만이나 어려움 등을 토로하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사랑의 집’을 떠나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며 살도록 기준을 정하고 그렇게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아동심리나 발달이론 등을 보면 만 6 세까지 인간성격의 기본 틀이

거의 형성된다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격이나 인생이 충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론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통해 영향을 주고받으며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 역시 날마다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함이 필요한 것이지요.

기도하기는 우리 아이들이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사랑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자신들의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먹고 자고 입는 것만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임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각자의 삶의 자리에 섰을 때 그 은혜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4:16)

♥ 글-최병훈: 2003년 10월 방글라데시에 들어와 사역을 시작하였으며 아내 김영미사역자와 두 자녀 건우, 해민과 함께 사랑의 집(보육원)과 장애인 사역, 그리고 목회자 훈련을 협력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일산광림교회(박동찬 목사) 파송.

♥ 사랑의 집: 국민) 757101-04-081775 (사)아시아포커스

## 교사가 되다!

슈밀 할달



저의 이름은 슈밀 할달입니다. 보라초등학교 교사이며, 5학년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13년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남편과 같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쌍둥이를 데리고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생존을 위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아들 쌍둥이를 데리고 무작정 치타공으로 올라온 저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고생 끝에 겨우 병원에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병실 청소와 글을 모르는 환자들의 입원 지원서를 대신 써 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일찍 출근해 저녁이 되어 퇴근을 하였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수입으로는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가 어려웠고,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두 아들을 돌보고, 학교도 보내야 하는데 출퇴근 시간에 매여 있어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겨우겨우 생계유지만 하는 삶, 제게 희망이 보이지 않았고 너무 낙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떠나신 것만 같았습니다. 힘들지만 그렇게 일 년 동안 병원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미션스쿨에서 교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인을 통해 APAB 학교에 대해 소식을 듣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력서를 제출했고, 시험과 면접을 통과해 APAB 보라초등학교 교사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5년부터 보라초등학교 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초등학교에서 일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보라초등학교 교사라는 이유로 동네 주민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가끔 동네 주민들이 APAB 외국인(한국인 사역자)들과 APAB 사역에 대해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잘못된 생각(정보)들을 가지고 있는지 종종 그것을 저에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들에게 ‘보라학교 교육을 통한 APAB의 정신과 섬김’에 대해 이해를 시키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 ‘기독교인들의 섬기는 삶’에 대해 소개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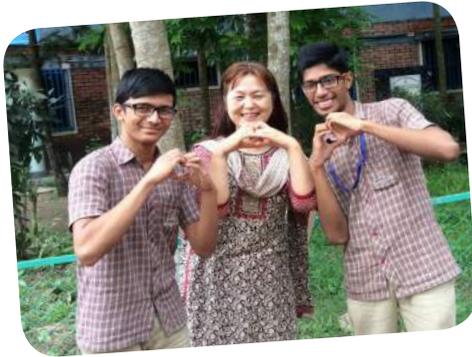
우리 반에는 무슬림과 힌두교 가정의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인성교육시간을 통하여 모범적인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 반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곤 하지요.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보라학교에 교사로서 일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 글-슈밀 할달: 2015년부터 보라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중입니다.

♣ 보라초등학교: 신한)2649-0104-168063 (사)아시아포커스

## 감사에 감사를 더하여... (해오름과 보라의 교육 이야기!)



이미연 사역자

2018년은 ‘보라학교 축복의 해’입니다. 이유는 보라학교 신관 건축이 완공되어 새 건물로 이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보라학교 신관 건축은 보라학교와 뽀떼아뵈 지역 주민들의 오랜 소망이었습니다. 보라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어린이들은 많은데 교실이 부족해 다 수용을 하지 못해 지역 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보라 신관 건축으로 인해 좀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보라학교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보라 초등학교 신관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수원성 교회의 성도님들과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라초등학교는 2005년에 99명의 학생들로 시작되었고 현재(2018년 1월)까지 총 501명의 학생이 입학했으며 31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2018년 현재 186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올해(2018년)부터 특별히 가난한 가정의 어린이들에게도 보라학교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극빈가정 어린이 장학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실이 부족해 각 학년만

다 한 학급만 운영했던 것을 보라신관 건축이 완공되어 올해부터는 한 학년에 두 학급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 올해부터 한 학급은 일반 가정의 어린이를 위한 학급으로 운영이 되고, 추가된 한 학급은 극빈가정 자녀들을 위한 학급으로 운영이 됩니다. 현재 극빈가정의 어린이 26명이 보라학교에 입학해 교육비 전액, 교복, 교과서, 소풍비, 견학비 등 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지원받으며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흔한 슬리퍼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한 어머니가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돈을 주어도 입학할 수 없었던 APAB 보라초등학교에 장학금 지원프로그램으로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으며 맨발로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가난하고 굶은일만 하다 보니 신발을 잘 신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자녀가 총명해도 교육을 시키지 못해 희망을 가질 수 없었는데 보라



학교에서 입학할 허락해 주고 교육비도 면제해 주어 감사하다 하셨습니다. 가난한 어머니의 감사함에 학교 스태프들도 저도 위로받고 힘이 나는 하루였습니다.

엑죽!! 해오름중고등학교

올해로 해오름중고등학교가 세워진지 12년이 되는 해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12년을 ‘엑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엑’은 하나 일이라는 뜻이고, ‘죽’은 세대를 의미합니다. ‘엑죽’이라는 것은 ‘한 세대가 꽉 채워진 완전한 해’라고 해서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이를 크게 기뻐하고 기념한다고 합니다. 해오름중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동문회 결성과 만남의 요청이 있어 개교 12년이 되는 ‘엑죽 뽀띠!’ 기념행사를 2학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7년 6,7학년 48명의 학생으로 시작된 해오름중고등학교는 2018년 1월까지 568명의 입학생 중 8회에 걸쳐 18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니다(중학교 과정만 마치고 수료한 학생 수 175명). 2018년 현재 207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정부에서 실시하는 JSC 중등과정 학력 인정 시험에 280명의 학생이 응시해 280명이 통과를 했으며, 8회에 걸친 응시자 280명의 90%가 A 이상의 성적을 받아 중등교육과정(6-8학년)의 기초실력이 탄탄한 좋은 학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과정(9-10학년)에서 2011년 첫 졸업생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8회에 걸쳐 18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는데, 다수의 학생들이 노틀담 칼리지, 홀리스크루스트 칼리지, 부에뜨(공과대), 쭈에뜨(공과대), 다카대학, 쏘우뜨그람 대학 등 명문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방글라데시 경제도 조금씩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의 씬씬이도 커지고 이에 따른 맞벌이 부모와 해외



14 2018 물에잠기는나라

노동자로 근무하는 아버지의 증가로 인해 편모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바른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보라와 해오름학교는 질서와 예절교육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 인사 잘하기!
- 바른말 쓰기! (욕 안 하기, 연장자에게 존댓말 사용)
- 기초 질서 지키기! (쓰레기 안 버리기, 줄 서기, 양보하기)

기초 교육이지만, 가정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여겨 학부모님 상담, 학부모님 미팅, 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방법들을 도입해 가정 및 지역사회와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지역 청소년들의 문제를 예방하고,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는 본이 되는 학교가 되고자 합니다.

방글라데시 치타공!

치타공 외곽에 자리한 하타자리 뽀떼아밧이라는 동네에 하나님께서 한국인 대표를 통해서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이와 같은 학교 사역을 뒤돌아 볼 때 기적이라 생각됩니다. 더디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며 ‘언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라는 답답한 마음이 들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계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보라와 해오름학교를 소망 있는 학교로 세우셨습니다. 이 지역과 이 나라의 사람들에게 새 날과 새 소망을 나누는 학교가 되어 훗날에도 오늘과 같은 기쁨을 감사로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길 소망합니다. 방글라데시 학교 교육의 새 시대를 보라와 해오름이 열어갈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해 주세요.

감사에 감사를 더하여...

1. 보라학교 신관 건축으로 어린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해오름중고등학교 중등과정 학교인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뽀떼아밧 보라와 해오름학교 사역에 지혜를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오랫동안 기도하던 보라와 해오름학교 컴퓨터실 운영을 위한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2010년부터 실시하여 2017년 현재까지 8년 동안 보라초등학교(PESC), 해오름중고등학교 JSC 정부 시험에 응시해 전원이 100%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해오름중고등학교 기도 제목

1. 해오름중고등학교 고등학교 과정 서류가 교육청에 접수되었습니다. 올해 인기를 받아 내년부터는 SSC 정부 시험에 해오름중고등학교 이름으로 응시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 부족한 월 운영비 900\$가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3. 학생용 의자가 130개가 필요합니다. (노후된 의자 교체를 위해서) (1개 제작비 19\$× 130개=2,470\$)
4. 건물 외곽 칠 하는 것을 위해 (약 2,000\$)

보라초등학교 기도제목

1. ‘극빈가정 자녀 장학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2. 보라 학생들이 방글라데시 각 분야의 리더들로 자라나기를
3. 극빈가정 자녀 장학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시는 수원성 교회와 후원회장으로 섬겨주시는 주상근 장로님과 후원자님들을 위해서

♥ 글-이미연: 서울 명덕성결교회 파송으로 2005년 12월부터 사역하고 있으며 한국 YWAM 파송(2014년), 2006년 보라초등학교 사역, 2007년 해오름중고등학교 사역과 함께 센터 내의 학교프로젝트 디렉터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해오름중고등학교는 강릉 장로교회 지원으로 건축되었고, 강릉교회와 후원자들의 후원, 학생들 학비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 해오름중고등학교: 신한) 2649-0104-168078 (사)아시아포커스

## APAB Phil Autistic Rehabilitation Center 장애인 센터

로날드 프리뿌라

2013년 정익모 대표님께서는 장애인 센터를 열었습니다. 장애인 센터는 방글라데시 정부로부터 5년간의 허가를 받았는데 이 사역이 사람들 사이에 좋은 평판을 받기 시작하여 그 결과로 5년간 허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처음엔 3명의 선생님과 6명의 학생들로 시작했던 장애인 센터는 지난 5년간 총 20명의 학생들로 늘어났습니다. 매년 많은 학생들이 입학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학생 인원수의 제한으로 입학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5명의 학생들과 6명의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몇몇의 학생들은 저희 센터의 도움으로 일반 학교에 입학할 수 있

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은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전문 선생님들로부터 체계적인 교육과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로날드 입니다. 저는 장애인 센터에 1년 6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자랑스롭습니다. 장애우들이 기초학습, 생활 기술, 공예품 만들기, 종이 가방 만들기 등을 통해 자신감과 독립심을 갖도록 돕기 위한 기초 직업훈련, 커뮤니케이션 개발, 운동 기능 개발 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와 비교했을 때 좀

더 유연한 교과 과정과 규정이 포함된 저희만의 학습 계획표를 만들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3개의 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선생님이 3:1 비율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아이들이 수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모국어의 날, 현장학습, 학급 파티, 체육시간 등 특별한 과목이나 특별한 날들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방문팀이 와서 다양한 교육 방법을 가르쳐주곤 했습니다. 저희는 모든 학부모들이 장애우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장애우들이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부모 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이후,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집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도와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센터는 특별히 매달 상담과 조언을 위한 학부모 모임을 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본 장애인 센터를 통하여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일들이 장애우와 그 가정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본 센터는 자폐 아동들을 위하여 방글라데시 정부와 치타공에 있는 다른 자폐 학교들과의 적절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더 많은 성공을 거둘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6 2018 물에잠기는나라



## 장애인 센터 학생들의 이야기 특별한 아이들

### 아온은...

라 프로탑 아온은 뇌 맥박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폐 아동입니다. 2010년 12월 7일에 태어난 아온은 이제 약 7살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형과 같이 살고 있는 단란한 가정입니다. 아온과 나운, 두 명은 쌍둥이입니다. 아버지는 중학교 선생님이시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입니다.

### 아온의 건강

아온은 말하고 걷고 먹는 것을 배우는 것이 다른 아이들 보다 조금 느린 편입니다. 왜냐하면 뇌 맥박 때문에 오른손과 다리가 구부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게다가 신경조직의 이상으로 힘을 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 처음 만난 아온의 상태

아온은 이러한 장애 때문에 말하는 것이나 쉽게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기본적인 가사 일도 할 줄 몰랐습니다. 아온의 오른쪽 다리에는 걸을 힘도, 오른손에는 잡을 힘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옷을 입거나, 양말을 신는 일, 이를 닦거나 음식을 먹는 것마저 아온은 할

수 없었습니다. 알파벳도 모르고 운동이나 어떤 것에도 그렇게 흥미를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아온의 부모님은 어떻게 하면 아온이 다른 사람들처럼 일상적인 삶과 교육에 들어갈 수 있을지 걱정과 고민을 했었습니다.

### 입학허가를 받다

이른 시기에 아온의 부모님은 많은 어려움과 미신적인 이야기들 또 사회로부터 오는 많은 제약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폐 아동에 대한 지식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님은 많은 의사들을 만나야 했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수차례의 검사와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온은 삼촌 집에 왔다가 APAB 장애인 센터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온의 부모님은 기대 가운데 아온을 센터에 입학시켰습니다. 현재 가족들은 센터 근처 임대주택으로 이사 와 살고 있습니다.

### 현재의 아온

충분한 체육 활동과 더 나은 교육을 받은 아온은 혼자 목욕을 하고, 옷을 입고, 음식을 먹으며 다른 사람

들의 도움이 없이도 다른 아이들과 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알파벳을 알고 쓰기와 읽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온의 부모님은 원래 살던 지역의 일반 초등학교에 아온을 보내기로 결심했고 아온은 일반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보통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기본적인 삶으로 점차 다가가고 있는 아들 아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APAB 장애인 센터와 모든 선생님들이 저희 아들을 세우는데 고생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이걸 오랫동안 바라왔던 꿈을 이루는 것이자 저희의 삶에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 세이마 이야기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들은 아이 주위에 수천 개의 아

니, 그보다 더 많은 꿈들을 짜놓습니다. 아이를 적절하게 돌보기도 해야 하지요. 그런데 만일 아이가 신체적 발달이나 뇌 발달에 어려움이 있다면 가족들에게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줍니다. 사실 아무도 이런 상황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 되는지 가능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 같은 상황에 마주칠 때 큰 혼란을 겪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도와주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합니다. 이러한 부모들에게 올바른 방법을 보여 줄 수 있는 올바른 사람의 도움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이마는 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위험한 상황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므드 살룸이고 어머니는 라제야 베품입니다. 세이마는 태어날 때부터 청각 장애가 있고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이마는 2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한 명은 그녀와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한 형제만이 장애가 없이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 오빠는 지금 가족들과 함께 해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세이마의 가족은 APAB 장애인 센터가 이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소망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센터로 찾아가 세이마의 장애에 대해 선생님께 상담을 받았습니다. 선생

님들은 세이마의 어려움을 듣고 난 후 세이마가 센터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세이마의 가정은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두 아이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 때문에 큰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그녀의 부모는 화를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 처음 만난 세이마의 상태

세이마는 16살 때 장애인 센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연필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점을 찍거나 편지를 쓰는 일이 불가능했습니다. 처음엔 그녀는 매우 불안해하고 불안정한 행동을 했습니다. 조연도 거부했습니다. 같이 무언가 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든 세이마에게 주어졌을 때 짜증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했습니다. 노는 것도 춤추는 것도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고 모든 것들이 세이마에게 귀찮아 보였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말해서, 소망이 없어 보였고 귀찮은 태도를 조절할 능력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이마의 상태는 더 이상 기대가 없고 마지막까지 온 것 같았습니다.

### 현재의 세이마

지금 세이마는 20살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세이마가 글을 쓸 수 있고 부모님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도 안다는 사실에 매우 기쁩니다. 이제 불안정해 보이거나 불안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대화도 알아들을 수 있고 지시에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림 그릴 때 색도 잘 맞습니다. 감자튀김과 같은 간단한 요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빵도 만들 수 있습니다. 세이마는 어떤 오락도 좋아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놀고 춤추고 노래도 합니다. 기본적인 예의도 배워 자신의 주위를 깨끗이 치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세이마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감사한 것을 표현하자면 “세이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변화들에 대한 정직한 증인입니다. 장애 학교와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세이마는 변하게 되었어요. 제 친척들이 모두 세이마의 변화를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교와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 글-로날드 프리뿌라: 사랑의 집 출신으로 장애인 센터에서 근무하였습니다 (2016.11~2018.5)

♠ 장애인 센터: 국민) 757137-04-008478 (사)아시아포커스

## 소망 봉제기술학교

베벨 할달

아시아포커스 APAB는 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소망 봉제학교도 그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총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슈퍼바이저, 홈패션 교사, 봉제 교사, 자수 교사, 행정담당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망 봉제기술학교는 1996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자신감을 길러주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소망 봉제기술학교를 통하여 여성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됨으로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의 첫 번째 목표는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봉제 기술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봉제 기술을 익히면 인근의 의류 공장에 취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4개월간 코스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모든 수강생들에게 교통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인 여성들에게만 봉제기술 수업을 제공했었지만 현재는 규정이 바뀌어서 남자나 학생들에게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스가 모두 끝나면 수료증을 받게 됩니다. 가장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에게는 재봉틀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이후 수료생들은 의류 공장뿐만 아니라 양장점 등 다른 곳에서도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는 자신의 가게를 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총 2000명이 저희 학교를 거쳐 갔습니다. 소망 봉제기술학교에서는 주 5일 내내 아침, 저녁으로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로 분주합니다. 저를 소망 봉제기술학교의 관리자로 있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글-베벨 할달: 소망 봉제기술학교 슈퍼바이저로 봉제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 소망 봉제기술학교: 신한)2649-0104-168025 (사)아시아포커스



## 하나님의 위대하심



몽 토와이 말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몽 토와이 말마입니다. 저는 말마 부족 사람입니다.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이에요. 부모님과 형, 누나 그리고 모든 친척들이 불교를 믿어요.

제가 아주 기숙사에 들어온 지 꽤 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계시도록 제 마음의 방을 열어 드렸지요.

지금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어 매우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들을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빛을 저희 가정과 사회와 나라 가운데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전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기숙사에 왔을 때 저는 제 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요. 그 문제는 어릴 때부터 함께 했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는 병이래요. 이 문제는 수술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그만큼의 돈이 없어요. 방글라데시 안에서 어떤 병원도 저의 사정을 이해해 주지 못했죠. 아무도 손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영락교회 의료팀으로부터 진료를 받게 하셨고, 진료해주신 선생님과 APAB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한국에 가서 제 병을 수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2018년 10월경에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수술을 잘 받고 방글라데시로 돌아와 대학에 진학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글-몽 토와이 말마: 폐동맥판협착증을 앓고 있으며 2018년 10월 한국에서 시술 받게 될 예정입니다.

-아주기숙사는 용인 아주좋은교회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 아주기숙사: 신한)2649-0104-168044 (사)아시아포커스

## 예상하지 못했던 나의 훈련과정, “방과 후 학교”

정찬양 단기사역자



2017년 7월에 허가를 받아서 10월에 시작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방과 후 학교’입니다. 삼성꿈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본 단체의 학교 운영 노하우도 있었고 방과 후의 시간에 개별적으로 보충학습이 필요한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였기에 아무 문제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가장 큰 오산이었고 저를 몇 개월간 너무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한 일들의 시작이었습니다.

우선 작년 7월부터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자면 슈퍼바이저가 다섯 번이나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다섯 번입니다. 5개월 안에. 하하하.. 첫



번째 슈퍼바이저는 자기는 사무 일만 하지 아이들과 교사들을 모집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예 홍보를 안 했는지 학생 모집 기간에 학생들이 거의 안 왔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파악해 보라고 했더니 자기는 그런 일을 못한다고 다른 엉뚱한 정보를 가져와서 낭패를 봤던 일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슈퍼바이저는 일을 너무 못했습니다. 새로 고용했다는 교사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라는 간단한 업무도 제대로 전달을 못하여 다른 젊은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세 번째는 젊었지만 게을렀습니다. 학생들이 자주 찾아오는데 학생들을 돌보지는 않고 학교에서 누워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첫 번째 사람을 재 고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적 사무일은 잘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일이 힘



들었는지 월급 받는 날 사표 내고 다음 날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다른데 가서 저를 욕하고 있겠지요. 가끔 길에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여러 감정이 저의 마음속에서 꿈틀댔을 느끼게 됩니다. 하하하!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용한 다섯 번째 슈퍼바이저는 아주 좋아서 지금은 학교가 안정을 찾았습니다.

초기의 에피소드를 하나 더 말씀드리지요. 저희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 교습과목을 영어, 과학, 수학으로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에서 과학과 수학은 부자들이 배우는 과목이라는 것을 저희는 처음에 알지 못했습니다. 고학년일수록 문과를 배우는 학생만 있고 과학, 수학을 배우는 학생이 적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수학과 과학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들이 개인교사를 채용하거나 학원에 등록을 해서 이미 다니고 있었고 저희에게 와야 되는, 정

말로 보충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그 과목에서는 1~2명 정도 밖에 오지 않았습니다(10학년 이후). 더 큰 문제는 문과는 회계와 컴퓨터 수업이 수학과 과학을 대체하는 수업이라고 하여서 문과학생들을 본의 아니게 제외시켰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착이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제공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다시 바꾸려고 해도 이미 신청을 그리하였기에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어려웠던 점은 이곳 사람들이 가진 생각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무료로 하는 ‘방과 후 학교’ 라고 하면 가난한 이들을 정말 필요로 하는 이들이 당연히 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몰려왔고 학생들은 채워졌지만 정착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오질 않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아무리 생

각해봐도 최근에 채용된 슈퍼바이저가 설명하기 전까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무료로 가르치는 ‘방과 후 학교’가 저희가 가장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더 설명 드리려면 무료로 시작하는 ‘방과 후 학교’가 있었지만 모두 2~3개월 후부터는 돈을 받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2~3개월 후부터는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이미 많이 ‘방과 후 학교’ 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돈을 벌었던 전적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정착 가난하고 돈이 없는 이들은 저희가 반년 간 돈을 안 걷는다는 것을 보게 되자 뒤늦게나마 신청하게 된 것이지요. 너무 늦은 이미 학생 수가 찬 다음에 말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글라데시를 잘 알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방과 후 학교’ 일을 겪으면서 제가 방글라데시를 얼마나 모르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 방법에 따라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상상력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교육 방식에 따라 얼마나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는지... 방과 후 학교가 얼마나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이 프로젝트에 따로 담당자가 필요한

지...등등, 이번에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행정 일을 하러 방글라데시에 와서 본의 아니게 ‘방과 후 학교’ 를 맡게 되었고, 해 보니 “할 만 합니다!” 라고 하면 좋겠지만 해보니 죽을 맛이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힘든 훈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 프로젝트를 단독으로만 놓고 보면 고생은 바가지로 하고 보람은 적습니다. 하지만 사역 전체적으로 본다면 필요한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과 후 학교’ 가 여러 방면으로 연결이 되어있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교육, 빈곤 퇴치, 미래, 관계, 지역 사회 섬김 등)

방글라데시에서의 제 사역은 앞으로 반년 남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열심히 달려보고 훈련을 받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전에 이 사역을 맡아주실 수 있는 분이 한국에서 오셨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소개한 시행착오는 많은 부분 해결되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요.. 하하하..

♥ 글- 정찬양: 한동대를 졸업하고 헛볼트리니티 신대원 휴학 중이며 방글라데시에서 ‘방과 후 학교’ 와 사무실 행정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기쁨, 감사 무룡 기숙사(반도르반 제자기숙사)

이미지 짝마

저는 매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반도르반 제자 기숙사를 대신하여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미지 짝마이고, 2017년 제자 기숙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전 제자 기숙사에서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사실 이런 곳에서 일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었습니다.

제가 기숙사에 왔을 때 처음 무룡 부족을 만났는데,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룡 부족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뱅갈어를 할 수 없는 학생들을 만나고 나서 저는 먼저 뱅갈어를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무룡 사회는 불교나 크라마를 따르는 부족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근 야산에서 일을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부족 언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뱅갈어를 잘 모릅니다.

부족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제자 기숙사 학생들은 반도르반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고 있다

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부족을 위한 고등학교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PAB는 반도르반 지역에 남자 기숙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여기에 온 뒤로 좋은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모든 학생들이 영어만큼이나 뱅갈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들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제 생각에 제자 기숙사는 가족이자 교육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귀한 일을 하는 본 단체에 감사를 드립니다.

♥ 글-이미지 짝마: 반도르반 제자기숙사에서 2017년부터 슈퍼바이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도르반 제자기숙사는 광주제자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 반도르반 기숙사: 국민)757101-04-081762 (사)아시아포커스



## 더 나은 교육 (3개 무료초등학교)

Mr. 윌슨



부들과 폐선처리 하는 인부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어부로 물고기를 잡거나 폐선처리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부모들은 문맹이지요. 요즘에는 본 단체 사역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3개 무료초등학교의 슈퍼바이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치타공시 인근에 있는 밀자노골, 바띠아리, 고라마라학교의 책임자로서 이 학교들을 잘 운영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가난한 아이들에게 교육의 빛을 주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3개의 학교 근처에는 어

2018년 새 학기 준비를 위해 배너와 포스터로 학교 공고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입학지원서도 나누어주었지요. 바띠아리학교를 제외한 밀자노골학교에는 고작 7-8개 정도의 입학지원서만 제 손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을 보며 제 방법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



습니다. 입학 지원서를 계속 기다렸지만 최종적으로 11개의 입학지원서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학교 선생님들은 협의를 한 후 대상 학생들의 집을 방문하여 학부모들과 상담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들과의 상담 결과 저희들은 학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사진을 찍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입학 허가를 받고 나면 아이들에게 책, 필기도구, 교복 등을 사줘야 하는데 이걸 그들에게는 너무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부모의 일을 도와주는 아주 좋은 일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다면 미래에 생활이 더 좋

아질 것이고 자립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교육받은 후에는 아이들이 변호사, 의사, 엔지니어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교육받지 못한다면 이후에 생활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더욱 빈곤에서 나올 수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각 집을 방문한 결과는 좋았습니다. 밀자노골학교에 11개의 지원서가 더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입학 허가를 받았고 학교 선생님들은 가난한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글- Mr. 윌슨: 바띠아리, 밀자노골, 고라마라 3개 무료초등학교 슈퍼바이저입니다.

♠ 3개 무료초등학교: 신한)2649-0104-168097 (사)아시아포커스



##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박금란 사역자



저는 작년부터 안식년을 신청해서 저만 나와 상담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이라 하지만 학기 중에는 나와서 공부하고 방학 기간엔 사역지로 들어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상담 공부를 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고 싶은 소망이 있어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던 중 갑자기 제 안에 저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사역하는데 더 필요할 것 같단 생각이 들면서 상담 공부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무심코 제 동생에게 나누었지요. “나에게 갑자기 상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잊

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빠릭~ 하고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가 \*\*\*만 원을 입금하셨습니다.’ 큰 금액이 입금되었기에 깜짝 놀라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보낸 거야?” “언니 공부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거로 우선 시작해.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헌금이야.” 헌금이라는 말에 나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믿음으로 상담 공부를 위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계속되었습니다. 지인인 은희 자매, 이사님, 이사님 사모님, 친정아버지, 친정 동생, 수원성 교회 집사님의 헌금과 원우회 장학회에서 주는 장학금 등이 그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올해로 선교지 나간 지 만 29년이며 저는 벌써 회갑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공부를 하겠다니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입학할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서울신학대학을 선택한 것은 80년도 제 언니가 이 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기숙사에

가서 함께 잠도 자고 밥도 먹으며 지내던 곳이라 친숙했고, 척박한 방글라데시에서 오래 살아서인지 자연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캠퍼스가 보기 좋았으며 상담대학원 역사도 가장 오래되었고 교수진들도 좋다고 추천해 주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카운슬링센터 까지 학교 내에 있어서 저에게 가장 맞는 좋은 학교로 인도해 주셨다는 마음에 감사함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상담 공부를 하면서 요즘 깨닫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배웠더라면 실수를 덜 했을 텐데.. 좀 더 잘 섬길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그것입니다. 정신분석과 이상심리에 대해 배우면서 출생부터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와 환경이 얼마나 개인의 삶 속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깨닫게 되었고, 청소년 상담 공부를 통해 제가 왜 사춘기 때 죽도록 반항했었는지를 깨달으며 그동안 제 아들과 딸, 그리고 사랑의 집에 있는 아이들을 잘 이해하고 돌보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아쉽고 안타까움에 마음이 아려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 상담 세미나를 통해 가족 안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 여러 가지 기법을 배우고 또한 교회나 단체 안에 갑자기 생기는 문제들을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안의 정서 체계를 점검하여 사

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더 많이 배워야 하고 또한 배우고 느꼈다고 해서 다 적용할 수 있을지는 숙제이지만 깨닫고 아는 것만큼 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작년부터 손가락과 손목이 아파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손끝마다 침을 찔러서 피를 빼내기도 하고 너무 아플 때면 자면서도 엉엉 소리 내어 울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나와서 이곳저곳 병원을 다니며 근전도 검사를 통해 원인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수술은 안 하고 기도하며 치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제가 쉬어야 할 때를 아시고 그냥 쉬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를 조금 더 성숙시키시기 위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변하지 않으면 더 실수할 수 있기에 공부를 통해 저희



마음과 몸을 고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제가 나와서 쉬며 공부하지 않았다면 저에게 영육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늘 비행기를 타고 방글라데시에 착륙할 즈음이면 저도 모르게 긴장하며 전쟁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헬리콥터를 타고 정글에 낙하산으로 투하되는 군인처럼 총탄을 몸에 두르고 장착하며 무전기를 들고 통화를 하며 투하되기 직전의 상황처럼 긴장되고 깊은 숨을 고르며 마음을 준비하는 단계로 들어가곤 하는데 아마도 그곳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뱅뱅 터지는 사건 사고들,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황들, 계속 어렵게 하는 현지인들과 처리해야 하는 많은 일들, 그치지 않는 소음과 무더운 날씨, 어디를 가도 쉴 곳 없는 그곳의 상황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면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힘을 내지만, 그래도 기후 좋은 내 나라 자연 속에 폭 파묻혀 살고 싶은 마음에 아름다운 산속을 상상하며 힘을 얻곤 했습니다. 상담을 배우면서 이것도 굉장한 치료이며 견딜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힘들다고 느낄 때마다 “이젠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교대해 주실 때

도 되었는데..” 하며 주님의 눈치를 살피다가도 아직 허락이 떨어지지 않아 순종의 자리에 있습니다.

저에게 공부하는 기회를 주신 것도 그동안 수고했다며 주시는 격려와 사랑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시작하게 하셨으니 마치게 하실 것이라 믿음을 가지고 남은 기간 재정과 건강 그리고 상황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사역자가 부족해 아들 찬양이는 저 대신 2년간 휴학을 하고 방글라데에 들어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엄마 상담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꼭 마치셔야 해요. 중간에 포기하시면 내면을 다 뒤집어 놓고 마무리 짓지 않아 더 힘들어 지실 거예요.” 라며 조언과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두 학기도 하나님의 기적을 또 기대해 봅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와 방글라데시를 위해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물심양면 동역해 주심에 감사와 사랑을 드리며 동역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시길 기도드립니다.

♥ 글-박금란: 정익모 대표의 아내로서 현재 안식년 중이며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 Room No.4

안은혜 사역자

사랑의 집, 월요일 저녁 6시 30분에는 아이들이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초 여자아이들의 숙소 Room No.4에 방기도 모임이 생겼습니다.

초등학교 여자아이들 8-9명이 모여서 찬송하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아이들은 두 손을 모아 사랑의 집 언니 오빠들, 스텝들,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방글라데시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며 찬양을 하면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몰래 창문 너머로 들여다보곤 합니다.

그중 “밀리” 라는 아이는 1년 전 사랑의 집에 올 때 7살이었는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 여러 번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었던 아이였습니다. 밀리는 언어, 공부, 모두 적응하기 힘들어하였지만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사랑의 집에서 매일 아침, 저녁에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밀리는 자신이 불교인데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느냐고 질문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밀리를 이곳, 사랑의 집에 보내 주신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지금, 밀리는 어린 작은 아이들과 함께 방기도 모임에서 중보기도 인도까지 하며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예배자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밀리와 같은 방에서 지내며 기도 모임을 하는 아이 중에는 “모니카” 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 사랑의 집에 온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모니카는 1년 반전, 5살 나이로 사랑의 집에 왔습니다. 모니카는 체구도 조그맣고 너무나 야위어서 만지면 부스러질 것처럼 몸이 약한 아이였지만 눈이 유난히 총명하고 맑아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많이 건강해졌고 성격도 밝아지고 학교에도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글라 고전 춤도 예쁘게 출 줄 알고

방기도 모임에서 기도하는 목소리는 얼마나 큰지 기도하는 목소리가 사랑의 집에 울려 퍼집니다.

2017년에는 주님께서 사랑의 집에 새로운 아이들을 11명이나 보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사랑의 집에 와서 아름다운 예배자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예배자로 아름답게 자라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사랑의 집에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 1) 사랑의 집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 2) 매주 금요일 모이는 사랑의 집 대학생 중보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하도록
  - 3) 스텝 7명과 안은혜 사역자가 지혜와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 4) 안은혜 사역자의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과 두 이들의 가정 지켜 주시기를
- \*사랑의 집을 위해 중보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셔서 감사 기도 올립니다.



♥ 글-안은혜: 2010년 4월 미국 시애틀 온누리교회에서 파송되어 사역을 시작하였으며 보육원(사랑의 집)과 장학생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개인후원관리자: 미국(오정민) Bank of America 39415658  
한국(안은우) 농협) 356-0086-4882-73

♥ 사랑의 집: 국민) 757101-04-081775  
(사)아시아포커스

## 악동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샤민 이아살 학생



된다.

친구 도시락 몰래 훔쳐 먹기! 스틸 만점이다. 수업 땡땡이치기. 수업을 빼 먹기 위해 일부러 지각을 해 화장실에 숨어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물벼락이 맞았던 일! 수업시간에 책상 밑에 들어가 선생님 몰래 도시락 까먹기.

학교생활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은 새해 학교에 첫 발을 내딛는 첫 등교 날이다.

학교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당연 친구들이다. 그다음은 친구들과 함께했던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떠오른다. 이것들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절대 잊히지 않으며 소중한 추억이 되어 기억에 남는다.

수업과 수업 사이에 5분간의 휴식 시간! 땡.. 수업이 끝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교실은 쑥셔놓은 벌집이 된다. 큰소리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마치 벌떼처럼 이리저리 엉켜 왔다 갔다 하다가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짧은 그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사가 되어 자리에 앉아 있게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다.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선생님 한 분! 아마도 이 선생님께서부터 맞지 않은 학생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시 한편의 낭독으로..웃다가 웃다가 너무 웃겨 바닥에 쓰러진 일!

스쿨 디렉터 미연 안띠! 기특하다 안아주기, 땀 닦아 주기, 친구같이 우리를 대해 주셨다. 디렉터 미연 안띠 앞에 가면 다 큰 우리도 순수한 어린 아이가 되어 버린다.

학교 시간에 간식시간에 쉬는 시간에 함께한 모든 사건들이 우리 맘에 새겨져 있다.

이것뿐이 아니다. 친구들과 견학을 가는 날.. 그 기쁨은 끝이 없다. 출발하는 버스 안에서부터 흥겨운

노래가 시작된다. 친구들과 함께 찍는 셀프카메라, 야외에서 먹는 맛있는 점심! 비 오는 날 친구들과 함께 비를 맞았던 일, 더운 날 햇빛을 피하기 위해 한 개의 우산에 5명이 머리를 넣고 집에 가던 일, 교정의 망고나무에서 망고 열매 몰래 따 먹기, 교실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다가 교장선생님이 오시면 줄행랑을 쳤던 일, 같은 반 친구들 모두에게 동물의 이름을 붙여 붙였던 일, 교실에서의 물싸움 등등 그러나 십대의 고된 삶, 힘든 일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런 행복한 기억들은 힘든 일들을 다 잊게 했다.

선생님들의 사랑. 친구들과 함께한 재미있던 시간, 그 시간들이 주는 기쁨, 스쿨 디렉터 코리안 안띠(이모)의 보호와 사랑, 무서운 교장선생님의 모든 것이 어우러져 우리 해오름

학교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

♥글-샤민 이아살: 2018년 해오름중고등학교 10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 나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아시키 상마

무엇보다도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제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에서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제 어린 시절 저의 꿈은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2009년 저는 해오름중고등학교에 6학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아시아포커스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제 삶이 축복 받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7학년부터 10학년까지 수업료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시험을 잘 보게 되었고 아시아포커스에서 주는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과 감독관께서는 저를 늘 잘 돌봐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감독관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저는 GPA5 HSC 시험을 과학 부분에서 4.17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국립 의대 시험과 다른 대학교 시험이 있었습니다.

비록 시험에 통과했지만 저는 충분한 합격 마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의대 대신 인류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의사가 되는 꿈을 포기하지 못했었습니다. 2017년 다시 의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립대에 합격은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의대 수업료를 낼만한 여력이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국립대에 지원하였으나 떨어져 저는 할 수 없이 다시 인류학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아시아포커스의 의료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시립대 의대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로 가는 꿈에 한 발짝 다가가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저는 아시아포커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후원자님들과 기관에 감사하고 사랑과 축복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힘을 얻고 소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저는 이걸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 헌신하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아시키 상마: 본 단체 직원의 자녀로서 스위스 SME 단체로부터 학비 전액을 지원받아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 치타공을 방문하며

박정근 집사



방글라데시 단기사역을 통해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출국 당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들었고 저는 무작정 성경을 펼쳐 시선이 가는데를 읽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중략) 오직 너를 헐시바라 하여 (중략)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사야 62:4~5]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애뜻한 사랑의 고백을 실제로 듣는 것 같았고 방글라데시를 알지 못했지만 그 땅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도 깊게 부어지는 감동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비행기를 통해 드디어 치타공에 도착했을 때의 기쁨은 잠시, 통제할 신호하나

없는 도로의 무질서한 모습을 처음 마주하며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제게 알 수 없는 기쁨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땅에 왔는데 내게 뭘 일이 있겠는가?” 라는 담대한 마음과 여유가 생겨나며 활짝 열린 트럭 창문으로 먼지와 매연이 들어와 숨쉬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기뻛고 어쩌다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감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수많은 현지 사람들을 보며 마음속에 “땡 잡았다!” 라는 마음이 들었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여기 와서 전도하면 땡잡은 거라는 마음이 들며 신났었습니다.

한 초등학교 수업 중 아이들을 바라볼 때 ‘많이 사랑해 주고 싶다!’ 는 마음이 들며 내게 먼저 자유함이 임했고 노래 부르고 춤출 때 반 아이들도 함께 춤추며 모두가 기쁨으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함을 느끼며 돌아왔고 숙소 침대에 앉아 한참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회에 가는 길에 하나님은 우리 단기사역 팀이 탄 버스가 고장이 나서 멈추는 상황을 겪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변의 듣고 있는 현지인들 가운데 깊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청소년들이 가득한 수련회 장소에서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보며 크나큰 감동을 받게 되었고 조별 말씀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아이들의 영혼이 진심으로 교제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아이들에게 나눌 때 모두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며 아이들을 진심으로 믿어주는 사람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밤에 말씀 교제를 할 때 한 아이의 담대한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불교 가정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도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부족에게로 돌아가서 어떻게 믿음을 유지해야 할지

두려움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받아 이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라는 담대한 고백을 들으며 참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럽고 도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아이들의 사진을 독사진으로 편집하고 그 사진에 이들의 비전을 적으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에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반드시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치타공을 떠나 다카에 도착하며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 들어 오기 위해 다카로 올 때의 시원한 마음이 아닌 떠나기 위해 다카에 도착한 마음은 달랐습니다. 비행기가 5시간 이상 연착된다는 소식을 접하며 대기하는 시간 피곤함에 대기실 의자에 누웠지만 마음속에 조금만 있으면 떠날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며 기도가 되었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변에 지체들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오가는 속에서 눈물을 감추려 고개를 숙이고 화장실로 달려가기도 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기사역 중 사역에 대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기도중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



으니 부족한 부분만 채워 달라.” 고 요청하시는 마음을 받았었는데 그때 저는 아내와 자녀들이 떠올라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순간 저는 제 자신의 믿음 없는 모습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으며 진정한 기쁨이 아님을 가정 안의 사건을 통해 알게 해주셨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싶어 기도의 자리에 나가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신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였음이 깨달아지며 그 마음을 외면했던 것에 대해 깊이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 9월에 교회 청년부에서 방글라데시 2차 단기사역을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게 아내와 함께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2차 단기사역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제 마음이 저희 가정의 마음이 되어 하나 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바라며 주님의 은혜가 방글라데시 땅에 부어질 것을 선포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글-박정근: 용인 기쁨의교회 단기팀으로(2017.10.2~8) 방문하였습니다





간증

## 지금, 이곳에서도 동일하신 하나님

유재성 청년

치타공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마주치게 된 방글라데시의 첫인상은 강렬했다. 총으로 무장하고 삼엄하게 공항 출입구를 감시하는 군인들, 공항에서 베이스캠프로 이동하면서 마주친 무질서한 도로, 인도도 없고 횡단 보도도 없고 신호등도 없는 차도 위를 활보하는 사람들, 도시 중간중간에 흉물스럽게 서 있는 무너지다 만듯한 건물들까지 이방인들인 우리의 눈에 다소 충격적이고 이질적인 풍경들이 방글라데시의 첫인상이었다. 방글라데시의 첫인상이 인상적이었던 만큼 치타공 한가운데 마련된 베이스캠프는 포근하고 안락한 휴식 공간이었다. 박금란 사역자님께서 차려 주신 저녁 식사를 하고 정익모 대표님

께서 아시아포커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역과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셨다.

1월 31일 수요일,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면서 방글라데시 문화와의 직접적인 접촉 또한 시작되었다. 그 시작한 일단, 현지 식당에서의 점심 식사였다. 음식이 맞지 않으면 어쩌나 했던 걱정과는 달리 모두가 맛있게 현지 음식을 현지 방식으로 잘 먹어서 사역자님께서 흐뭇해하실 정도였다. 음식이 모두의 입맛에 잘 맞았고, 후식으로 나오는 '짜' 라는 밀크티 비슷한 차도 아주 맛있었다. 그 후 식료품을 사기 위해 현지 시장을 방문해서 우리를 신기하게 바라보며 낯선 언어로 서로 수군거리고 종종 웃

음을 터트리는 현지 사람들과 시장의 각종 과일과 채소, 고기의 냄새와 다양한 향신료 향이 한 데 뒤섞여 진동하는 공기를 통해 우리와 다른 방글라데시의 문화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시장에서 장을 다 본 후에는 여성들에게 봉제 관련 기술을 가르쳐 줘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는 소망 봉제학교에 방문해서 이곳에서 교육받고 있는 여성들과 스텝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며 이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다음 날엔 아침 기차를 타고 긴 시간을 이동해서 자맛뿔 지역으로 이동하고 다시 봉고차로 갈아타고 2시간 정도 이동해서 가로 부족 지역에 있는 청소년집회 장소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저녁을 먹고 우리가 향한 곳은 부족 교회였다. 가로등 하나 없어 칠흑같이 캄캄한 시골길을 랜턴 불빛만 의지하며 도착한 교회에서 현지인들이 찬양을 시작할 때, 시

장에서 그렇게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배제하는 듯했던 방글라데시인들의 언어가 이 예배의 자리에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언어가 되어 우리가 안전함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해주었다. 이제 이 언어는 이제 더 이상 저들과 우리를 가르는 벽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에게 다가가게 해주는 자그마한 통로가 되었다. 가로 부족 지역에서 보낸 2박 3일 내내 다양한 방글라데시 그리스도인을 만나면서 동일한 경험을 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 대학생들과 청년들, 부부들과 어르신들, 심지어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까지, 이들은 모두 우리와 모든 것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사실 하나로 인해 서로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준비한 문화 공연을 함께 즐기고, 복음에 함께 도전 받는 등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는 일들이 가능했다.

2박 3일 간의 자맛뿔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다시 치



타공으로 돌아온 뒤에는 정익모 대표님이 사역하시는 기관들을 하나하나 방문했다. 먼저, 주일 오후 예수전도단 제자훈련 프로그램 DTS의 예배당에 가서 DTS 사역에 헌신하는 청년들을 만나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때, 멘롱이라는 청년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청년은 캄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헌신하고 있었다. 대학 그리스도인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는 집회를 기획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재정 등에 대한 문제로도 고민이 많다고 하지만, 그 청년의 말투나 눈빛에선 어떤 주저함이나 후회나 불안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멘롱의 모든 행동과 말에 배어 있는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따뜻한 마음이 인상 깊게 남았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믿음 병원, 보라초등학교, 사랑의 집(보육원), 해오름중고등학교, 아주 기숙사, 어촌에 세워진 초등학교인 밀자노골 학교와 비띠아리 학교 등에 방문하면서 달란트 시장에 참여하기도 하고, 아이들과 뛰어 놀기도 하고, 서로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기도 하고, 팀이 준비한 공연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사역 마지막 날인 2월 8일에는 장애인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사실 지체 장애인들을 가까이에서 대해본 적도 없고 어쩌면 그렇기에 지체 장애인들에 대해 막연한 불안함과 편견을 가지고 있던 우리에게 이 사역이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졌었다. 하지만 팀원들이 함께 기도하며 센터에 있는 아

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가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모으자 하나님께선 두려움과 불안함 대신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안에 가득한 평안을 풍성하게 부어 주셨다. 그 마음을 안고 센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세족식을 하며 그들의 발을 닦아 주는 시간을 가졌고 헤어질 시간이 되었을 때 어떤 한 아이가 우리를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꼭 안아 주었을 때,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밝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인사를 해줬을 때 가장 작은 자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작은 자를 통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었다.

장애인센터를 방문하고서 마지막 사역으로 장학생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모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받게 되는 온갖 차별과 불평등한 대우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



도인 청년들을 위로하고 믿음을 붙잡아 주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 날 예고되었던 시위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참석하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와는 달리 다행히도 많은 청년들이 참



석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팀원과 방글라데시 청년이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고, 나광군 목사님과 정익모 대표님이 이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 밖에서는 소위 권력을 잡았다고 하는 자들이 작은 자들에게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무의미한 권력 투쟁에 매달려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작은 자들을 당신의 사람으로 세우시면서 이 방글라데시를 회복하고 계셨고 이 청년들은 방글라데시를 변화시킬 비전을 품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마지막 사역까지 끝나고 다

음 날 정익모 대표님 댁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공항으로 나섰다. 자칫뿔에서 돌아온 시점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팀원들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그 와중에 태국에서의 긴 경유 시

간, 밤비행기를 타야만 했던 귀국 일정으로 인해 한국에 도착했을 때 많이 지쳐 있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에서나 이제 사역이 끝난 후에 우리가 살아갈 삶의 자리에서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깨어진 작은 자들과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다. 그렇기에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해 주신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기도와 후원으로 우리를 끝까지 살아남게 해 주신 일산동안교회 공동체에게 생명을 빚지고 돌아왔다. 이 마음 그대로 아버지를 더 알아가고, 공동체와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길 소망한다.

♥글 - 유재성: 일산동안교회 청년팀으로 (2018.1.30.~2.8) 방문하였습니다.

##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음병원)

홀라마짱 라케인

현재 저는 믿음 병원에서 보건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의 직무는 의사와 함께 환자들과 그의 친지들에게 신체 건강과 정신적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육체적 문제는 1)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법, 2)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들에게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방법, 3) 요통, 관절통 등 통증을 가진 환자들에게 통증이 지속되지 않고 또 빨리 통증이 풀릴 수 있도록 다른 종류의 운동을 알려주는 것, 4) 과체중 또는 과체중으로 인하여 오는 질병을 가진 자들에게 체중을 줄이는 것에 대하여 조언을 주는 것, 5) 흡연자들에게 흡연의 폐해에 대해 알려주고 금연을 도와주는 것, 6) 폐렴의 주된 원인을 찾고 예방법을 찾는 법, 7) 건강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하여 학부모들이 영양 식품 공급과 청결에 신경 쓰는 방법, 8) 장내 기생충과 박테리아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질병들을 보호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 9) 위에 관련된 병이 있다면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 10) 배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11) 왜 불면증이 있고 충



분한 수면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12) 에이즈에 대한 정보와 예방법을 알려주고 전염시 빠르게 대처하는 법 등에 관한 것입니다.

정신적 문제에 대해서는 1) 가끔씩 과도하게 슬프거나 심각한 병으로 인하여, 예를 들어 에이즈나 암과 같은 병으로 인하여 소망을 잃어버린 환자들을 믿음 병원에 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찾아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격리된 방에 같이 앉아 그들에게 성경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사랑을 전하며 그들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용기를 줍니다. 보통 저는 성경 구절을 (고린도후서 4장 16절, 로마서 8장35-39절, 요한계시록 21장 4절, 시편 121편 7-8절, 마태복음 11장 28-30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환자들과 나눕니다.

과도하게 생각을 해야 하거나 너무 슬프게 만드는 많은 문제들은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런 각기 다른 정신적 문제를 가진 환자들이 매일 병원에 찾아옵니다. 저는 그들과 대화를 할 필요를 느낍니다. 가끔씩 사랑과 용기를 주고 이 모든 것들이 죄 때문임을 알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들 중에서는 자신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저에게 육체적 치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멋진 기회를 믿음 병원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성경 속에 나오는 진리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명확하게 전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말하죠. 지금은 그들에게 죄에서 회복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입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고(로마서 6장 23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1장 12절, 로마서 10장 9절-10절, 5장 6절-8절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 병원에서 책임감과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부족과 모든 가족들은 여전히 불교를 믿고 제 삼촌은 불상을 섬기는 승려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는 불교 공동체의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불교에 관한 모든 일들을 했었습니다. 제가 자랄 때 아버지와 함께 불교 사원에 갔었고 불교에 관한 것을 배웠으며 승려이신 삼촌으로부터 불교 역사에 대해 들었습니다. 제 가족은 불교에 굉장히 헌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매우 존경받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전 통사회와 불교 배경인 가문으로부터 선택하셨고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 궁금했고 매우 알고 싶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과 사랑하는 아버지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 구주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그의 삶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까지 말입니다. 죽으시고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시며 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순간에도 저는 예수님을 제 삶의 구원자이자 제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제 마음에 받아드립니다. 지금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살아계

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매우 행복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또 믿음 병원에서 일하는 것이 흥분되고 행복합니다.

저는 말룸갓 기독교 병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난 5년간 섬겼었습니다. 환자들이 저에게 올 때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죄인이고 죄를 용서받기 원하고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매우 슬프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길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간증을 읽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믿

음병원에서 보조의사로 일하고 있는 저의 남편과 보라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저의 아들(올리버 뺨기)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저의 삶 전체가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제 가족들과 친척들을 위해서도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는 제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복음의 출산을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이 글을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글 - 홀라마짱 라케인: 믿음병원 보조사의 아내로서 보건의료 담당자입니다.  
♥믿음병원 : 국민)757101-04-105174 (사)아시아포커스



## 교회개척사역

정익모 대표

지난 5월 8일 무롱 노똌 마을 헌당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젊은 형제가 개척을 한다고 해서 쉽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하였지만 해보라고 하였는데, 2년이 지나 교인이 얼마 되지 않지만 25명-30명의 사람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크기의 교회당을 양철로 만들어 주민들과 같이 감사의 시간을 가진 것이지요.

기독교 국가(영국)의 오랜 지배를 받았고 기독교가 소수인 나라이기에 교회당 건축이나 목회자 사례비는 대부분 외국의 지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나라에서 자립을 위해 교육을 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원을 중단케 되거나 지

원 정도를 낮추는 일들이 생기면 이에 대해 비판적인 개척사역자들은 모함을 하거나 선동을 하며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사역하는 현지 사역자들로 인해 힘을 얻고는 하지요. 제가 다녀온 노똌 마을 개척 사역하는 형제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제가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1:8) 권능으로 증인이 되서 나가야 하지요. 그런데 그 권능을



힘입지 못하니 사례비나 차비, 출장비 등을 이야기하고 없으면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니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사역하라고 권면하고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저도 때로는 너무 힘든 싸움인 것 같아서 어렵게도 느껴집니다.

저와 오랫동안 동역자로 때로는 친구로 지내

는 개척 단체 리더인 현지인 목사님은 자유 합니다. 그분의 입에서 한 번도 돈이 없어 사역을 못한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지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꾸준히 사역해 나가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는 하지요 (아내 되시는 사모님 입장은 믿음이 다르면 어려울 수 있겠지요). 현재는 M 그룹 사역과 본인의 고향마을 교회 사역을 병행하고 있지요, 얼마 전에는 M 그룹에서 10 명이 주님에게 나오는 일이 있어 침례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처음 저희가 개척할 때에 몇 시간씩 며칠씩 걸어 다니면서 사역하였던 때를 기억합니다. 현재 저희 개척 사역의 모습은 저의 기도 부족과 연약

함이 어우러진 우리 개척 사역의 현주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으로 인한 성령의 능력이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부어질 때 인간적인 염려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사역에 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같이 동역하는 개척사역자 50명과 동역하

는 YWAM 60명이 주변 환경을 뛰어넘어 사도행전의 제자처럼 힘 있게 사역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동역자님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부어질 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하는 사역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나온 많은 이곳 현지인들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이분들이 영원 속에서 주님을 같이 찬양하는데 동참하겠지요. 이런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함께 해주신 모든 동역자님들께 감사합니다(기업과 교회와 단체 개인 등).

1994년 1월 제자훈련학교 학생들의 전도여행에서 시작된 개척 사역이 1995년 체얼맨 마을에서 첫 교회

가 건축이 되었고 1999년에는 목회자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저희 개척 사역에서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며 훈련과 교육을 진행한 부분은 '교회의 자립' 입니다. 부족 전체가 오래된 기독교인이나 제대로 된 성경책 없이 신앙생활을 하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들이고 특히 방글라데시 교회는 대부분 외국의 재정을 의지하는데 익숙하여서 '자립'이란 큰 목표를 두고 싸우는 싸움이 쉽지 않습니다. 갈 길이 멀어도 시작해야 갈수 있기에 3년 전부터 강하게 훈련하기 시작한 결과가 작년 중순경에는 심한 반발로 이어져 몇 명의 목회자들이 교육에도 안 오고 다른 단체와 교단을 기웃거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변화시키셔서 두 명의 목회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지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족별 각 지역별 기도회 및 말씀 사경회를 자발적으로 실시하여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개척 리더인 민투 목사의 말아들이 강가에서 익사한 일, 그리고 중요한 리더 중의 한 명인 이삭 목사가 재정이 어렵다고 동네에 가게를 차려 목회보다 장사에 더 집중하여 나타나

는 부작용 등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조금씩 침체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무롱 부족 체얼맨의 아들인 망용은 재작년 결혼하여 작년에 제자훈련을 받고 교회 개척 사역에 관여하며 침체된 교회 및 목회자들에게 도전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롱 부족 가까운 지역에 훈련센터를 위한 땅을 구입하였고(반도르본), 무롱 부족을 관리할 사무실과 간단한 세미나를 할 정도의 벽돌과 양철로 된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이 완공되면 무롱부족 개척 사역을 더 원활하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무롱에 교회당 건축이 필요한 지역과 짝마 부족에 교회당 건축이 필요한 지역(치운, 깔라지리, 치타볼, 따굽디아) 마을과 우물이 없어 고생하고 있는 교회 개척 지역인 슈크나초



리, 바깥 교회 지역을 돕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콕스바잘 지역에서 똥창야 부족을 위한 개척 사역이 시작되어 5월 2일부터는 목회자 개척자 세미나에 현지 사역자가 참석하기로 하여 오래 기도하였던 기도 응답을 볼 수 있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M 종족의 사역이 JMB 지역에서 계속 진행되고는 있으나 예배드릴 장소가 문제가 되어 각 가정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가운데 정기적인 예배를 위해선 넓은 장소가 필요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오닐 목사님이 계속 강건하심으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작년 2월 22일 한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방글라데시로 돌아온 가브리엘과 리코가 교회 개척 사역에 같이 동역해줌으로 지금보다 더 세밀하게 깊게 사역할 수가 있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는 개척 사역과 더불어 매해 진행되는 청소년 사역(캠프) 대

학생사역 (MC 캠프 포함) 제자훈련 학교 등도 저희가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역입니다.

부족한 우리들의 순종함이 이 땅에 교회 개척의 열매로 나타나 여러 지역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현지 목회자들을 섬겨주시는 고마우신 (주)아트스프링 오영록 대표님과 순복음영광교회, 아주좋은교회, 제자교회, 한나선교교회 등 기업과 단체, 교회와 각 개인에게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막16:20)

♠글-정익모: 1989년 YWAM (예수전도단) 방글라데시 파송 1991년2월 남부 치타공 지역 개척 현재 방글라데시 남부 지역 Eldership으로 섬기면서 방글라데시 국제 NGO인 APAB (한국명: 아시아포커스)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개척사역(현지인목회자): 국민 571901-04-072449 정익모

## 로힝야 난민소식



필립 비사시

미얀마 아라칸 지역에서 또다시 무고한 시민들의 학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인들은 로힝야족을 끊임없이 박해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무슬림인 로힝야족이 주된 대상이지만 그중에서 기독교와 힌두교들도 박해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지를 얻고 있는 미얀마 군인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로힝야족의 집을 태우고 있습니다. 로힝야족의 박해는 2017년 큰 사회적 이슈가 되어 세계가 떠들썩하였지만 로힝야족의 박해는 시작된 지 이미 몇 백 년이 넘었습니다. 1937년도에 로힝야 소수민족은 미얀마 군인들에 의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재배치되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에게 시민권과 교육 제공을 거부하고 있으며, 지역 내 자유로운 이동 또한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는 것

이 가장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 미얀마 소개

미얀마는 오랜 기간 동안 영국 식민지로 있다가 1948년도에 영국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미얀마는 14개의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라칸 주 또는 라카인 주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구의 89%는 불교도이며, 4% 무슬림, 5% 기독교인 그리고 나머지 2%는 힌두교인입니다. 미얀마는 135 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라카인족과 로힝야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아라칸 소개

아라칸 주 또는 라카인 주는 미얀마 서부- 방글라데시 국경에서 서남서 쪽으로 집단 지역 이동을 하였습니다. 아라칸 주는 본래 마우우 왕국의 독립국가였으며 불교 나라였습니다

다. 이 왕국은 350년 넘으면서 아라칸 왕국과 합치게 되어 일부가 되었습니다.

### 이슬람교의 도래

벵갈 항로에 위치되면서 아라칸족은 미얀마와 무역 또는 문화 교류를 하게 되었고 아랍 상인들과는 3세기 넘게 무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벵골 항로에서 무역 루트를 사용하여 많은 무슬림들이 인도와 중국과 무역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세기 때부터 벵골 항로 쪽에 아랍 상인들과 로힝야족이 거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로힝야족은 어디서 왔는가?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로힝야족이 미얀마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12세

기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방글라데시와 인도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미얀마로 이주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이주를 보며 많은 현지인들이 눈살을 찌푸렸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로 미얀마가 있을 당시 영국 정부에서는 로힝야족을 시민으로 인정하였지만 미얀마가 독립국가가 되면서 많은 불교도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로힝야족을 외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로힝야족은 왜 외면당했을까?

1948년 미얀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직후, 민족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노동조합 시민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2015년 로스쿨 인권상담소 보고서에 따르면, 로힝야

족은 거기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미얀마에 살고 있는 적어도 두 세대 정도는 신분증을 제공해주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로힝야족은 초기 세대의 조합 아래 신분증 또는 시민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1962년 미얀마 군대의 쿠데타 사건 이후 로힝야족의 상황은 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에 새로운 시민권 법이 통과되면서 로힝야족은 국적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법 아래 로힝야족은 국가의 135개 민족 중 하나이며(귀화 시민권) 가족들이 1948년 전부터 미얀마에 살았고 뿐만 아니라 민족의 언어를 유창하게 사용한다는 증거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로힝야족은 그런 서류들이 부족했는데 왜냐하면 서류들이 사용할 수 없거나 거부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 아라칸에서 라킨 지역으로의 이름 변경

1989년, 군사정권은 공식적으로 버마에서 미얀마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1990년대 군사정권은 로힝야족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라칸에서 라킨으로 지방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오랜 세기 동안 아라칸으로 알려져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 미얀마정부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부는 보안군에 대한 공격에 책임

이 있는 무장 단체와 테러분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라킨 지역에서 마을을 파괴하는 테러리스트들을 돕는다고 국제 구호 활동가들을 비난했습니다. 자신의 안전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구호 활동가들은 그 주장에 대해 위험하고 무책임하다고 비난했습니다.

### 로힝야족 난민 문제

로힝야족은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고 있는 소수 민족입니다. 미얀마 정부는 한 번도 그들을 나라의 시민권자로 또는 합법적인 민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이 영국의 식민지 시절에 방글라데시에서 넘어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몇몇은 그곳에서 8세기부터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100년 이전부터 살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2017년 8월 25일, 미얀마 군대는 로힝야족을 고문했고 그들은 방글라데시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미얀마 군대와 정부는 로힝야족의 박해를 부



52 2018 물에잠기는나라



인했습니다. 그러나 사진에서 미얀마 군대와 정부가 수많은 로힝야족을 불태우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학대와 강간 그리고 학살을 당했습니다.

**무력한 로힝야족의 미래는 무엇인가?**

힘이 없는 로힝야족의 정보는 그때 알려졌습니다. 로힝야족은 미얀마 정부의 고문 때문에 나라를 떠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군대 배치와 정부의 실행으로 로힝야족을 그들의 땅에서 몰아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대부분의 로힝야난민을 받아들이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마무리**

로힝야 사건은 세계적으로 큰 토픽거리 입니다.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무자비한 행동은 세계인의 양심을 흔들여 놓았습니다. 로힝야족은 미얀마에서 그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자유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어디서든 보호받을 수 있기를 원하며 기본적인 생활권의 향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1992년부터 방글라데시로 넘어온 로힝야 난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던 중 이번 70만 명 넘는 난민들이 새로 넘어오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필요한 방법과 재정 등을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난민수용소나 관리자등이 부탁하는 것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보건진료센터 설립과 운영 그리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펌프를 설치하는 일들이기에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글-필립 비사시: 로힝야 프로젝트 조사를 2달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보라초등학교 슈퍼바이저로 일할 예정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 인터뷰**

ITC통역스쿨/윤혜림



옥규) 저희가 일 년에 한 번씩 단체 소식지로 ‘물에 잠기는 나라’ 책자를 만드는데 첫 기획으로 ITC통역스쿨 후원자님을 만나서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 장애인사역에 어떻게 후원을 하게 되셨는지 직장 동료들과 함께 방글라데시를 방문하신 소감 등을 책자에 실으려고 합니다.

효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먼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혜림) 저는 ITC 통역스쿨 분당 지점을 맡고 있는 윤혜림 원장 입니다.

효진) ITC 통역학원은 어떤 학원인가요?

혜림) 우리나라는 문법 위주로 영어 교육이 활성화 되어 있잖아요, ITC 는 우리나라의 문법 위주의 영어 교육의 문

제점을 해결한 교수법을 가지고 있는 학원이에요. 그래서 마치 어학연수를 다녀온 것처럼 실제적인 영어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는 기관이구요. 학원이니까 사교육뿐만 아니라 공교육에도 수업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대안학교에 저희 수업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의 아이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또는 선생님이 찾아가는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제공하는 교육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효진) 그렇군요. 그러면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교육하나요? 실제적인 ITC 만의 교육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혜림) 차별화된 것은 없고 똑같이 수업에 들어가는데요, 가까운 보육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직접 가서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진행을 하고 계세요. 선생님들이 갈 수 없는 지역은 온라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온라인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가 아니고 물질이 필요한 곳에는 후원금을 보

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옥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회사 내 나눔 분위기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혜림) 저희 본사(수원)에는 대표님과 직원들이 있어요. 본사와 같이 저희도 (북한의 보육원 아이들의 분유가 안 좋고 해서) 뉴질랜드산 질 좋은 분유 제공해 주는 후원을 하구요, 우물을 파주는 사역도 합니다. 깨끗한 물을 먹어야 아이들이 질병에 안 걸리기 때문에 우물 파주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인도나 동티모르의 아이들에게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을 지어주었어요.

옥규) 어떻게 아시아포커스에 대해 알게 되셨고 후원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혜림) 저희 대표님 설립 취지가 선교이었고 저희 지점도 똑같이 선교목적으로 학원운동을 하고 있어요. 작년까지 몇 군데 조금씩 후원을 해오다가 든 생각이 현재 학원규모가 작다고 후원을 안 한다면 사업체가 커져도 안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후원 대상자를 늘리자. 부담이 되더라도 후원을 늘리자는 소원함을 주셨고 실장님(남편)과 기도하던 중에 저희 교회에 정익모 대표님이 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무작정 만나 뵙자고 전해드렸죠. 카페에서 만나 대화 중에 장애인 센터가 존폐 위기에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게 인도하심인가보다 해서 후원을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옥규) 장애인 센터 사전조사를 위해서 2012년 9월에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를 통해 한국에서 장애우 들을 돌보고 계시는 목사님 부부와 함께 현지 방문을 했었어요. 이후 2013년 1월에 장애인 센터가 세워졌습니다. 장애인 센터는 재정이 많이 필요한 사역입니다. 아이들 수는 적지만 선생님들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답니다. 2018년 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사역을 계속해야 하는지 접어야 하는지 존폐 위기에 있었어요.

혜림) 맞아요, 그때였어요.

옥규) 저희 대표님이 마침 일이 있어서 한국에 나오게 되셨어요. 그때 기쁨의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장애인사역 후원하시는 분이 나타나셨다며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 결과 방글라데시 정부로부터 장애인센터 사역 재허가(5년 갱신)를 받게 되었고, 2018년

에는 많은 장애우 들이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혜림) 네, 방글라데시에 가서 그 아이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옥규) 입학생도 많아지고 선생님들의 역량도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보내주시는 후원금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효진) 세이마, 아온 장애우 두 명이 일반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옥규) 방글라데시는 처음 가보신건가요?

혜림) 네, 방글라데시는 처음 가봤어요. 방글라데시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혜림) 제가 진짜 많은 나라를 가봤는데 방글라데시는 정말 생각도 못한 곳이었어요. 어렸을 때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저희 집에 잠깐 지냈었는데 그때 그분들을 보면서 저 나라는 절대 가지 말아야지. 그랬죠..

효진) 이번 여행을 진행하시기까지의 어려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직장선교는 매일 하는 거잖아요. 일상적으로 하는 일을 거기 가서 하는 것이니까 어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거잖아요. 내가

가서 해야 되는 공연이나 워십 이나 그런 게 아니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아이들에게 주는 거라서 실제적인 것 같고 또 접근성이 쉬운 것 같았어요. 이번 선교 여행에 대한 기도제목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대표님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두 번째는 선생님들에게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사역이 되도록, 세 번째는 돈 버는 목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안전하게 다녀와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습니



옥규) 새비람 이라고 해야 될까? 신선하다고 해야 될까? 방글라데시 현지에서 사역자님들이 ITC통역학원 사역을 보면서 많이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혜림) 감사하네요.

효진)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혜림) 저희에게 삼시세끼를 한국 음식

으로 제공해주셔서 저희가 다 살이 찌서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갔다 왔나? 기쁨의 교회 단기 팀은 너무 고생했다는데 너희는 어디 갔다 왔나? 같은데 갔다 왔는데 그 팀은 너무 고생하고 저희는 너무 편안하게 갔다 온 거예요. 다른 단기 팀은 영적인 사역만 하는데 저희는 장애우들과 함께 소풍갔죠, 동물원 갔죠, 배 탔죠, 범퍼 카도 탔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옥규) 평소에 나눔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림) 나눔이요? 저희가 갔다 와서 로고를 정했어요. "우리는 당신의 꿈을 돕고 나누고 실천하는 ITC 입니다." 최근에 저희 선교 모토킨 한데 선교라고 쓸 수는 없는 거예요. 회사다 보니까 크리스천이 아닌 분들도 많기 때문에 선교라고 하면 거부감이 들수 있어서 어떻게 풀어서 써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저희가 꿈을 돕고 있잖아요. 영어를 가르치면서 꿈이 바뀌는 것을 봤어요. 한국에서만 머물 수 있는 꿈이 영어를 하면 세계적으로 뻗어 갈 수 있잖아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대학가는 아이들도 많이 보고, 그 아이들의 꿈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후원을 하게 되고, 제 주변분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싶어 하세요. 보육원 사역도 하고 싶어 하고 하지만 거기까지 인 거예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실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적더라



도 일단 시작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작은 금액, 큰 금액으로 나누어서 후원하고 있어요.

옥규)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은?

혜림) 신실하신 하나님

혜림) 어릴 때부터 보면 제가 기도 했던 것은 다 이루어 주셨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지만 결국에 보면 되어있는 것들을 요즘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사역자가 될래요!" 그러잖아요(웃음). 아프리카로 가야할 것 같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어떤 형태로 왔던 간에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현재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 제 모습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십니다.

옥규, 효진)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참석자: 윤혜림, 김옥규, 신효진

##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재판이야기)

박글란 사역자

저희 치타공 뽀떼아뵈 땅과 재판에 대해 말씀드리고 기도부탁을 드려야 했던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나간 저희가 그 땅에서 땅으로 인해 재판까지 하

중에 천만 원(CCM 가수 최인혁 집사님 콘서트 헌금)을 주고 계약을 했고 1년 후 잔금을 지불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 후 IMF가 왔고 땅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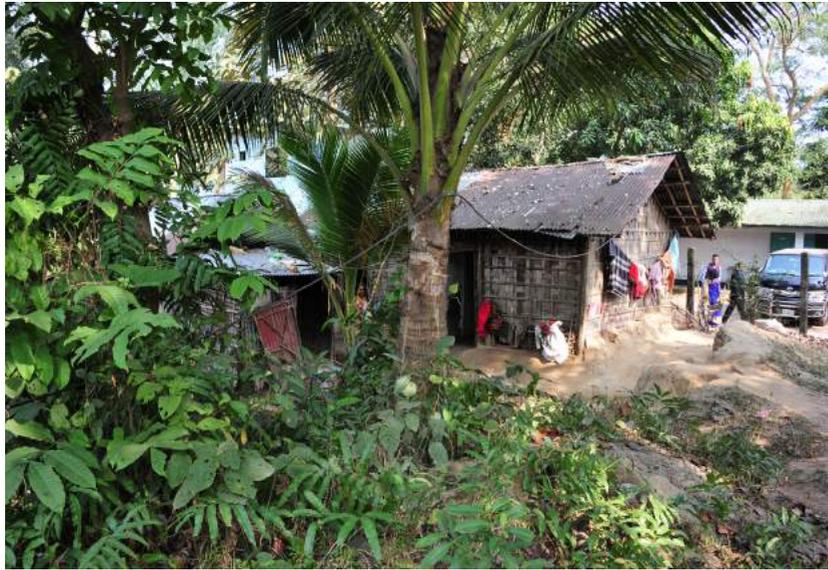
고 있는 것이 동역자님들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 단체가 뽀떼아뵈이란 곳에 약 만평의 땅을 구입한 것은 1997년도, 약 20년 전이었습니다. 그 해 7월에 전체 만평의 땅 구매액 1억 3천만 원

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라며 간곡하게 말리는 유정수 집사님의 권유로 힘을 얻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로 결정하고 기도하며 홍보지도 만들어 알리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정말 기적적으로 네 분의 명퇴금과 함께 교회와 단체 병원 그리고 개인들

을 동원하여 잔금을 치르게 하시고  
 기적적으로 땅을 구입하게(IMF환율  
 로 2억이 됨) 하셨습니다. 땅은 구입  
 했지만 담장을 칠 재정이 없어 경계

속해놓고 그들은 여러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이사를 미루기 시작했습니  
 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이  
 거주하는 땅이 60평이 아니고 180평



선에 나무로 된 말뚝을 박아 놓았다  
 가 돈이 생겨 철조망을 쳐서 경계를  
 표시했었습니다.

이라며 우리를 상대로 법원에 고소  
 했습니다. 등기서류 상 땅 소유자가  
 본 단체임에도 이 나라에선 이런 소  
 송도 가능하다 하더군요.

본 단체가 구입한 땅 안에는 옛 땅  
 주인의 종살이하던 세 가정이 60평의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구입 당시 면  
 장을 동석한 가운데 약간의 이사 비  
 용을 주고 땅의 다른 한쪽으로 옮기  
 기로 그들과 약속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었지요. 그렇기에 그들이 사는  
 쪽엔 철조망을 치지 않고 나무 말뚝  
 만 박아 놓았었습니다. 옮기기로 약

본 단체는 가능하면 그들과 합의를  
 해보려고 면장, 군수, 경찰서장,  
 도지사 등 많은 사람들과 수도 없이  
 만나고 미팅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막  
 대한 돈 (한화 1억 5천만 원)을 요구  
 해 왔고, 돈을 주지 않으려면 옮기  
 기로 한 60평 땅에 4층 건물을 지어 달

라고 저희가 들어줄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  
 작된 재판이 지난 12년간 진행되어왔  
 습니다. 12년 동안이나 재판을 하게  
 된 것은, 그들이 고소를 해놓고 재판  
 날짜가 되면 재판 관련자에게 뒷돈을  
 주고 시간 연장을 하거나 정치 상황  
 이 좋지 않을 때는 재판이 미루어지  
 기도 하여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더욱 저희를 힘들게 했  
 던 것은 끊임없이 걸어오는 싸움입니  
 다. 벽돌을 던지고 달려들어 할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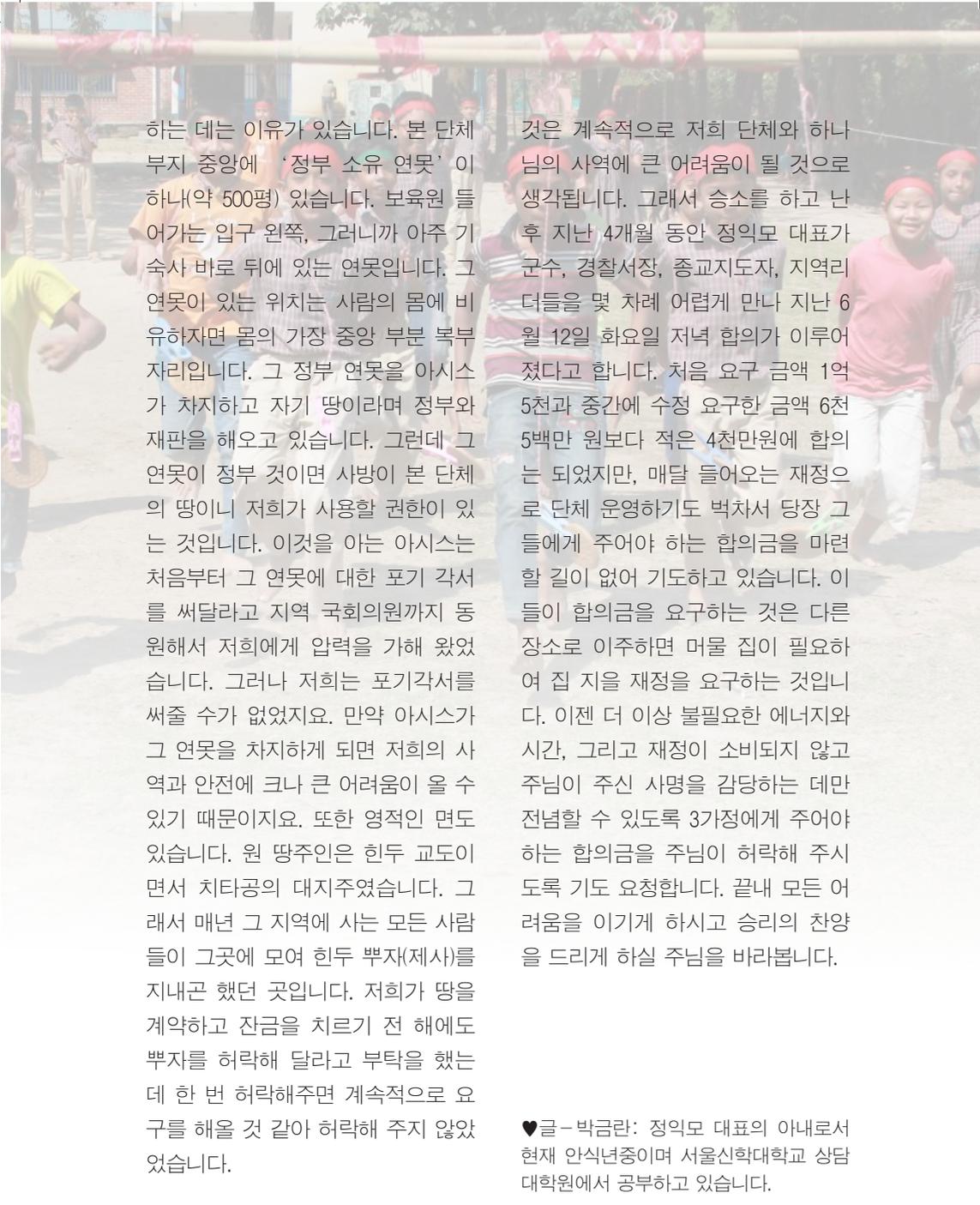
이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은 힌  
 두 교인이며 지역리더인 ‘아시스’  
 와 힌두 공동체입니다.

‘너희들 절대 포기하지 말고 괴롭  
 혀라. 너희가 죽을 때까지 돈을 벌어  
 도 그만한 돈을 어디서 만들 수 있겠  
 느냐? 외국인들을 계속 괴롭히면 돈  
 은 나온다.’ 며 부추기고 나중에 돈  
 이 생기면 값이라고 하며 재판 비용  
 을 대주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 땅을  
 사고 나서부터 아시스는 수없는 거  
 짓 고소를 해서 저희들을 괴롭혀왔



핸드폰을 빼앗아 가고 목걸이도 빼  
 앗아 가는 등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  
 처럼 무리지어 달려들어 공격할 때도  
 있었습니다.

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승소를 했  
 지요. 그래도 아시스는 포기하지 않  
 고 이 같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뒤에  
 서 조정하며 고소를 하여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시스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 단체 부지 중앙에 '정부 소유 연못' 이 하나(약 500평) 있습니다. 보육원 들어가는 입구 왼쪽, 그러니까 아주 기숙사 바로 뒤에 있는 연못입니다. 그 연못이 있는 위치는 사람의 몸에 비유하자면 몸의 가장 중앙 부분 복부 자리입니다. 그 정부 연못을 아시스가 차지하고 자기 땅이라며 정부와 재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이 정부 것이면 사방이 본 단체의 땅이니 저희가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아시스는 처음부터 그 연못에 대한 포기 각서를 써달라고 지역 국회의원까지 동원해서 저희에게 압력을 가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포기각서를 써줄 수가 없었지요. 만약 아시스가 그 연못을 차지하게 되면 저희의 사역과 안전에 크나 큰 어려움이 올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영적인 면도 있습니다. 원 땅주인은 힌두 교도이면서 치타공의 대지주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힌두 뿌재(제사)를 지내곤 했던 곳입니다. 저희가 땅을 계약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 해에도 뿌자를 허락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한 번 허락해주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올 것 같아 허락해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이 계속 그곳에 머물러 사는

것은 계속적으로 저희 단체와 하나님의 사역에 큰 어려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승소를 하고 난 후 지난 4개월 동안 정익모 대표가 군수, 경찰서장, 종교지도자, 지역리더들을 몇 차례 어렵게 만나 지난 6월 12일 화요일 저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처음 요구 금액 1억 5천과 중간에 수정 요구한 금액 6천 5백만 원보다 적은 4천만원에 합의는 되었지만, 매달 들어오는 재정으로 단체 운영하기도 벅차서 당장 그들에게 주어야 하는 합의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장소로 이주하면 머물 집이 필요하여 집 지을 재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불필요한 에너지와 시간, 그리고 재정이 소비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도록 3가정에게 주어야 하는 합의금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 요청합니다. 끝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찬양을 드리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글 - 박금란: 정익모 대표의 아내로서 현재 안식년중이며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 보라초등학교 새 건물 소식



## 하나님의 열심으로

김현리 간사

두근두근 설레었습니다. 그래서 그 런지 이것저것 준비하는 모든 시간 들이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습 니다. 방글라데시 단기사역을 준비하 면서 모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이 기다려졌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 하면 그 시간을 모두 건너뛰어서 방 글라데시로 바로 갔으면 하는 마음 이었습니다.



87%의 모슬렘이 있는 곳으로 인 도네시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신도 수를 자랑하는 이슬람의 땅! 여성과 아이들의 권리가 땅에 떨어 져 있고, 그들의 생명이 경시되고 있 는 땅! 매년 반복되는 홍수로 국토의 80%가 물에 잠기고 그로 인해서 가 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땅! 배 우지 못하여서 문맹률이 높고, 인구 밀도가 높은 땅! 거리의 나무들이 푸 른 녹색이 아닌 많은 먼지로 인해 전

체적인 도시의 이미지가 암울한 회색 빛을 띄고 있는 땅! 무질서한 거리의 자동차들과 릉사와 미니 택시, 그리 고 그 속에서 빼곡하게 얽혀서 살아 가는 사람들이 있는 땅! 정확히 13 년 전에 밟았던 방글라데시의 모습입 니다. 물론 13년이라는 시간은 흘렀 지만 여전히 보이는 방글라데시의 모 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3 년 동안 변하지 않은 듯 보이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 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APAB 센터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준공식과 입학식을 준비하며 기대감 가득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는 보라초 교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모습을 보 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절로 지어졌 습니다. 저의 마음도 이런데 ‘이 모 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



떠실까?’라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 다. 비록 모든 이들이 함께 드린 준 공 감사예배는 아니었지만 센터의 사역자님들과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 느껴졌습니다. 이 기쁜 역사의 시 간에 저와 우리 수원성교회 단기 팀 을 동참시켜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식순과 환영의 시간 그 리고 축하공연 등등.. 이 이어졌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이 기억나는 것은 아 니합니다. 보라초교 안으로 들어가면 서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웃음이 끊 이지 않던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교 실에서 새로운 화장실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복도를 뛰어 가던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 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보라의 작은 씨앗이 이곳에 심겨서 수원성교회까

지 동참하며 이렇게 예쁜 보라초교가 세워진 것처럼, 보라의 작은 복음의 씨앗이 동일하게 보라초교의 학생들 가슴 가운데 심겨져서 자라고 열매 로 맺혀지길 간절히 기도해 보았습니 다. 이곳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 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이 땅 방글라 데시의 미래의 주역으로 자라서 곳곳 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흠날리며 주 님을 전파하는 영향력 있는 이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보육원에서의 식사와 강당에서의 공연, 믿음 병원 방문.. 13년 전의 시 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보 육원 이곳저곳을 보며 홀로 추억에 젖어보았습니다. 머리에 풍선 투구를 쓰고, 풍선 칼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 께 장난도 쳤던 시간.. 기타 치며 한 국어 찬양을 가르치며 즐거워했던 시 간.. 사역자님의 도움으로 소그룹으

로 인도하며 나뉘던 성경공부 시간.. 함께 예배하고, 간증도 나누고 하며 은혜 받던 시간.. 이전에 계신 사역자님과 닮았다는 이유로 한 아이에게 머리띠 선물도 받고, 사랑을 받았던 시간.. 그 시간이 그리워서 예전의 사진들이 저장된 SNS를 열어 박금란 사역자님께 보여주며 추억을 꺼내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만나고 함께 했던 추억의 그 아이들이 어느덧 자라 성인이 되어 이미 APAB의 스텝으로 섬기고 있거나, 이후의 섬김을 위해서 간호 학교 등에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며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13년 전에도, 그리고 13년이 지난 지금도, 그리고 이후의 시간 속에서도 일하셨고, 일하실 것임을 다시 한 번 눈으로 보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로 APAB 센터와 그곳을 섬기시는 정익모 대표님과 많은 사역자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감동이 됩니다. 최병훈, 김영미 사역자님과의 만남..이 또한 감동이고 반가움이었습니다. 말씀은 안 하셨지만 분명 많은 부분이 힘드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하시며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절로 감사가 되었습니다. 두 분의 모습은 정말 13년의 시간이 무색해질 만큼 그대로셨습

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이 땅 방글라데시에서 묵묵히 10여 년, 20여 년의 삶을 살아가며 섬기고 계신 사역자님들의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13년 전 단기사역으로 이 땅을 밟은 제가 사역지에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사람인지 고백하며 다시금 제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했던 시간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잘 것 없이 작고, 아무 것도 자랑할 것 없는 저와 우리 가정이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귀한 선교의 발걸음을 준비시키고 계시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케 하셔서 사용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약한 저와 저희 가정이지만 이런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친히 일하실 것다 말씀하시며 이번 방글라데시 단기사역 가운데 눈으로 목도하고 깨닫게 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글-김현리: 수원성교회 간사로 2018년 1월 24일 보라초등학교 개원식에 단기팀으로 방문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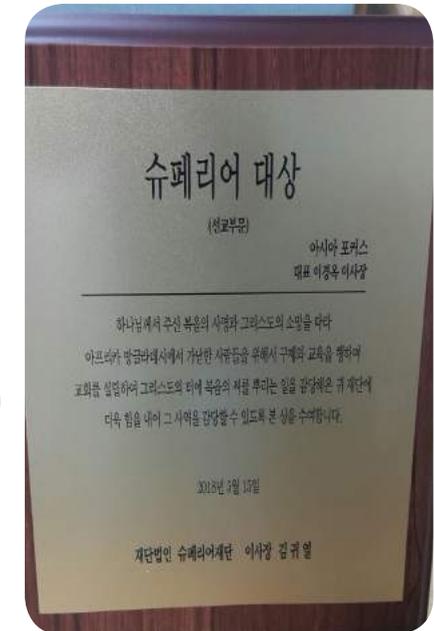
## 제 5회 슈퍼리어 대상 시상식

CBS 노컷뉴스 조혜진 기자, 2018-05-15 18:19

슈퍼리어재단이 제 5회 슈퍼리어 대상 시상식을 열어 국내외에서 헌신해온 선교사들을 격려했다.

재단은 아프리카에서 의료와 교육사업에 힘쓴 아프리카 미래재단 황영희 이사장에게 봉사부문 상을, 방글라데시에서 NGO를 설립해 선교활동을 해온 아시아 포커스 이경옥 이사장에게는 선교부문 상을 수여했다.

또, 방글라데시에서 학교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해온 변영수, 김순희 선교사 부부에게는 개인 선교부문 상을 수여했다.



## 본부소식

### ♥ 감사합니다.

1. 방글라데시 방문사역 (2017.1-2018. 6)  
예산교회청년부팀(1.17-1.24) CGNTV팀(9.20-9.26) 기쁨의교회팀(10.2-10.8)  
강릉교회팀(2018.1.14.-1.21) ITC통역스쿨팀(용인)(2.11-15) 수원성교회 방문  
팀(1.22-26) 일산동안교회팀(1.30-2.8) 영락의료봉사팀(2.15-18) 광천감리교  
회팀 (6.14- 21)
2. 현지인 목회자 및 개척사역자 지원  
순복음영광교회, 한나선교교회, 광주제자교회, 아주좋은교회, 오영록 집사  
님(아트스프링) 외 여러 교회 및 후원자님들
3. 보라초등학교가 수원성교회 안광수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후원으로  
새 건물학교준공식을 하였습니다(2018.1.24).
4. 슈페리어 재단 선교대상을 본 단체가 수상하였습니다(2018.5.15.).  
상금은 밀자노골초등학교와 장학생 사역에 사용됩니다.
5. 장애인센터를 후원해주시는 ITC통역스쿨, JH사랑나눔재단, 선수연 집사  
께 감사드립니다.
6. 보라와 해오름학교 컴퓨터교실을 위해 헌금해주신 수원성교회와 강릉교  
회 및 후원자들께 감사드립니다.
7. 학교, 병원, 보육원 등 여러 프로젝트와 동역하는 사역자들을 후원해주시  
는 교회, 기업, 단체, 개인후원자들께 감사드립니다.

### ♥ 필요합니다.

1. 방글라데시 치타공에서 사역할 장·단기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기간 및 문의사항 : 한국본부 사무실로 연락요망
2. 해오름중고등학교 운영재정과 밀자노골학교 운영비 부족한 것이 채워지  
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3. 뽀떼아밭에 거주하던 3가정의 이사비용 4,000만원을 채워주시도록

### ♥ 알립니다.

1. 믿음 병원이 스위스 SME 단체와 MOU 계약을 체결하였으며(2017. 6 운영  
비 60% 지원), 현지 직원 자녀 아시키 상마(1년 학비 및 입학금 4천만 원  
정도)외 여러 명이 장학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몽 토와이 말마가 폐  
동맥관협착증으로 서울대 병원에서 10월에 시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2. 삼성꿈장학재단 지원으로 (방과 후 학교 프로젝트,165명)가 2017.10월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3. 매월 두 번째 월요일 저녁 6시 방글라데시와 아시아포커스(APAB)를 위한  
기도 모임이 단체 사무실(합정동)에서 있습니다.
4. apabang.net (교회개척사역 홈페이지) 개설 되었습니다.  
가입 후 승인이 필요하오니 아시아포커스에 연락바랍니다.

### ♥ 사역자 근황

방글라데시 사무실 행정업무와 방과 후 학교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정찬  
양사역자가 2017년 3월 5일부터 2018년 10월까지 근무합니다. 행정사역을  
담당할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 ♥ 한국본부 사무실

1. 국제협력단(KOICA ODA) 인턴 신호진 YP 가 아시아포커스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2018.1.1~7.31). 그리고 7월부터는 김래영 YP가 7개월  
간 근무하게 됩니다(2018.7.1~2019.1.31).
2. 제13회 정기총회 및 이사회가 3월 29일 이사님, 후원자님들을 모시고 여  
전도회관에서 잘 마쳤습니다. 예배 시 말씀을 전해주시신 배병택 담임목사님  
께(화명교회) 감사드립니다.

\* 연간 소식지 ‘물에 잠기는 나라’ 는 단체의 편집 방향에 따라 실는 글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사)아시아포커스/ APAB(벵갈지역구제개발기구)

아시아포커스는 방글라데시의 1억 7천만 명과 인도 동 벵갈주의 7천만 명 등 벵갈어를 사용하는 2억 5천 이상의 밀도 높은 지역에 비전을 가지고 APAB라는 방글라데시 국제 NGO 민간단체로서 일하여 왔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외교부 소관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아시아포커스가 2005년 8월 설립되었습니다. 아시아포커스는 소외된 아시아 이웃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데 선한 섬김으로 봉사하며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랑의 통로입니다.

1989년 YWAM(한국 예수전도단 소속) 정익모(박금란) 대표가 방글라데시에 입국하여 치타공에 내려와 사역을 준비하던 중 1991년 4월 29일 태풍과 해일로 15만 명 이상 죽는 자연재해를 목격하고 긴급구제사역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방글라데시 정부에 자연재해 지역을 돕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국제 NGO단체로 APAB를 설립 1992년 7월 30일 허가(등록번호 641호)를 받아 사역을 진행하여 왔으며, 연이어 본부 역할을 수행키 위해 한국 정부에 (사)아시아포커스 명의로 2005. 6. 20일 자로 법인을 설립 등록(474호)하여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아시아포커스는 매년 본 법인의 감사기관으로부터 재무 상황에 대해 감사를 받고 있고, 외교부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받고 있으며, 나아가 홈페이지로도 공시하고 있습니다.

APAB 또한 매년 현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후 현지 NGO 청으로부터 재확인을 받으며, 이때 투명한 재정상태가 확인되어야만 다음 해 사역을 진행할 수 있게 허가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모든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원계좌

교회개척 사역	개인사역(전체)	021-21-0647-739	국민	정익모
	현지인목회자	571901-04-072449	국민	정익모(사역자)
NGO 사역	전 체	916401-01-255130	국민	사)아시아포커스
	전 체	504027-01-001553	우체국	사)아시아포커스
	사 랑 의 집	757101-04-081775	국민	사)아시아포커스
	장 학 금	757101-04-097134	국민	사)아시아포커스
	믿 음 병 원	757101-04-105174	국민	사)아시아포커스
	기 술 학 교	2649-0104-168025	신한	사)아시아포커스
	보라초등학교	2649-0104-168063	신한	사)아시아포커스
	치타공아주기숙사	2649-0104-168044	신한	사)아시아포커스
	해오름중.고등학교	2649-0104-168078	신한	사)아시아포커스
	바띠아리학교	2649-0104-168082	신한	사)아시아포커스
	밀타노골학교	2649-0104-168097	신한	사)아시아포커스
	고라마라학교	2649-0104-168100	신한	사)아시아포커스
	산속부족마을학교	437-910014-31104	하나	사)아시아포커스
	반도르반제자기숙사	757101-04-081762	국민	사)아시아포커스
가브리엘,리코 외	757137-04-007400	국민	사)아시아포커스	
장 애 인	757137-04-008478	국민	사)아시아포커스	
행 정	757101-04-040734	국민	사)아시아포커스	
개인 후원	안은혜 사역자	356-0086-4882-73	농협	안은우
		39415658	Bank of America	오정민

\* 각 사역별로 매달 정기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CMS를 활용해주시고 신청은 한국사무실과 아시아포커스 홈페이지 ([www.apabang.net](http://www.apabang.net))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CMS는 직접 은행에 가시는 불편함을 덜어드리며 수수료 없이 매월 자동 이체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ASIA FOCUS | CMS 출금이체 신청서

## 후원참여방법



1. 출금이체신청서 작성



2. 휴대폰 사진 촬영



3. 010-6337-8690으로 전송!

## 수납 기관 및 요금 종류

수납기관명	아시아포커스	사업자등록 번호	113-82-05914
대표자	이경옥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2안길
수납 요금 종류	후원금		23, 4층 401호 (서교동)

## 출금이체 신청 내용 (신청고객 기재란)

출금계좌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사업자는 등록번호)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금융기관명	출금계좌번호	
예금주 연락처	예금주 주소	
신청인명	예금주와의 관계	
신청인 연락처	신청인 휴대번호	
매월 납부금액	이체일 (선택)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4일 <input type="checkbox"/> 23일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 (해지일) 후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주)아인티피에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 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 메시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_\_\_\_\_인 또는 서명

예금주 : \_\_\_\_\_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1. 인감 또는 서명은 해당 예금계좌 사용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해야 합니다.
2. 기존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해지 신청을하고 신규 작성을 해야 합니다.
3. 주계약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반드시 예금주의 별도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